

한국을 넘어 중동으로 진출 확대

농식품부, 한-UAE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현황 공유·농식품교역 확대 방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기후변화환경부와 지난 19일 서울에서 제2차 한-UAE 농업협력위원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한-UAE 농업협력위원회는 2015년 양국간 체결된 농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제1차 회의는 2015년 UAE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우리측에서는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을 수석대표로 하고, UAE측은 사이프 알사라 기후변화환경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농업정책 현황 공유, 스마트팜분야 협력 강화, 농식품교역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양국에서 추진 중인 농업농촌관련 정책을 공유하며,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한, 양국은 작년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던 양국간 스마트팜 분야협력에 대한 진전 상황을 확인하며,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시작되는 4개 분야(가축재

어, 스마트온실, 대추야자, 벼재배) 공동연구과제(9개) 추진에 대해 양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농식품 교역 확대를 위해 정부간 노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국 인삼 수출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한국산 인삼제품 수입관련 소관부처와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출 애로 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UAE측은 식품분류기준, 수출에 필요한 요건 등을 제시하며 우리

인삼의 중동지역 진출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양국간 정상회담 이후 중동 지역과의 농업협력분야가 활력을 띠고 있으며, 회의를 계기로 교역확대 등 농업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UAE 대표단은 이번 방문기간(6월17일~20일) 중 농진청장 면담 및 산하연구기관 방문, 스마트팜 현장 시찰, 인삼관련 업체 방문 등을 진행했다.

차기 제3차 회의는 2020년 UAE에서 개최하고 날짜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영태 기자

한류스타와 함께 전세계로!

aT, 차기 K-FOOD 홍보모델로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 발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2020년까지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ASTRO)'가 한국 농식품 수출 홍보모델로 활동하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aT는 청량, 상큼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스트로의 이미지가 동남아, 일본, 중국 등지의 해외 젊은 소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한국 농식품과 잘 어울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얼굴천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차은우와 아역배우 출신 문빈은 각각 골 방영예정인 드라마를 촬영중으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에 아

스트로와 함께 전방위적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첫 화보 촬영에서 아스트로는 딸기, 사인머스켓 포도, 파프리카, 유자차 등 한국 수출농식품에 적극적인 호감을 보였다.

멤버 차은우는 평소 즐겨먹는 과일인 딸기를 품으며 우리 과일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향후, 해외 소비자들인 aT가 주관하는 K-FOOD Fair, 소비자체험홍보 등 우리 농식품 해외 온오프라인 홍보행사에서 아스트로의 신규 화보를 만나 볼 수 있게 된다.

허빈기에는 아스트로가 출연하는 웹드라마도 제작하여 한국농식품의 매력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2020년까지 아이돌 그룹 '아스트로'가 한국 농식품 수출 홍보모델로 활동한다.

또한, aT에서 주관하는 K-FOOD Fair 등 대형 오프라인 농식품 수출 홍보 행사에서 아스트로와 해외 소비자들 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aT는 한류스타, K-POP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전세계에 한국 농식품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 농업인 기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지사장 정형모)가 분기별로 진행되는 '농업인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행사가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정형모 농협자산관리전북지사장과 김태호 농협장수군지부장, 김용준 장수농협 조합장은 19일 농업인 신용회복컨설팅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수군 번암면 김모 농가를 방문, 생필품과 쌀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농업인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부실화된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생계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협자산관리회사 전복지사의 농업인 신용회복 컨설팅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한 후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터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고 있다.

농협자산관리전복지사가 올해 초부터 진행하는 농업인기(氣)살리기 프로젝트는 농업인 신용회복컨설팅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채무로 힘들었던 시간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도록 범농협이 함께 방문, 응원하고 격려로 재기 의지를 북돋아주는 프로젝트이다.

정형모 지사장은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 컨설팅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스타 영어강사 권필' 초청 강연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규)은 지난 19일 원광고등학교에서 제26회 '2019 JB 인문학 강좌'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JB인문학 강좌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전라북도 청소년들에게 학습 동기부여와 미래의 꿈 설계,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좌는 원광고등학교 300여명을 대상으로 SBS 웃찾사 출신의 개그맨이자 야구부의 스타 영어 강사인 권필을 초청, '단군신화 100일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권 강사는 무명 개그맨에서 유명인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권필 쌤'이 되기까지 본인이 겪었던 좌절과 희망들을 이야기하며 "모든 일은

나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일어난다"는 말과 함께 "땀과 노력을 의심하지 말라"고 전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최근 슬럼프에 빠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강의였다" 또한, "어렵게만 생각했던 8품사들을 밥상으로 표현하시며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성재환 이사는 "청소년들이 역경을 딛고 일어난 강사의 소중한 경험담을 통해 미래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재단은 더 나은 문화 및 교육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고객만족과 안전이 최우선"

전 옥 대표 산업포장·문길천 대표 국토부장관상 수상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는 20일 서울 노원동 건설회관에서 거행된 '2019년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전북도회(주)대한전옥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유)대연건설 문길천 대표이사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전 옥 문길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주)대한전 옥 대표이사는 선전 윤리경영 선도기업의 슬로건을 실현하고자 고객만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수행과 노사간 화합을 조장하고 혁신적인 사회공헌사업과 지역 체육 인재 육성에 앞장섬으로 건설업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전 옥 대표는 그동안 공공공사 성실시공 공로로 '시공능력 우수 건설업체 선정'과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바 있고 민간분야에서는 건축문화상 수상 등으로 우수 품질 시공을 검증 능력을 인정받아 건설업계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유)대연건설 문길천 대표이사는 성실시공과 창의적 혁신을 통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와 나눔을 통해

혁신적인 사회봉사 와 국민 편익사업 성실시공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에 앞장섬 공로 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대영회장은 "전북도회에서 산업포장과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은 경사스런 일"이라고 강조하며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와 함께 응원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정부에서는 해마다 건설의 날에 대한민국 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건설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LX, 중진공과 함께 공간정보 스타트업 양성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공간정보 분야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이상직)과 손잡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중진공은 20일 LX본사에서 최창학 사장, 이상직 이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스타트업과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협력 운영과 자금, 판로개척, 글로벌 진출 등의 공동 지원이다.

최창학 사장은 "LX는 2016년부터 매년 10개의 공간정보의 창업기업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며, "협약을 계기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개공, 전임 건설교통국장 초청 경영자문 간담회 실시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20일 전임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을 초청해 공사의 발전을 위한 자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사업 등에 대한 업무계획 설명 및 홍보영상 시청, 경영방향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통해 전임 국장단은 공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 노력에 대해 격려하고,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사업발굴에 힘써주시길 것과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추구하여 공사경영 발전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천환 사장은 "선배 국장님과 전임 사장들의 노력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사장의 직무를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언급해 주신 내용을 귀담아 듣고 향후 공사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사 경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